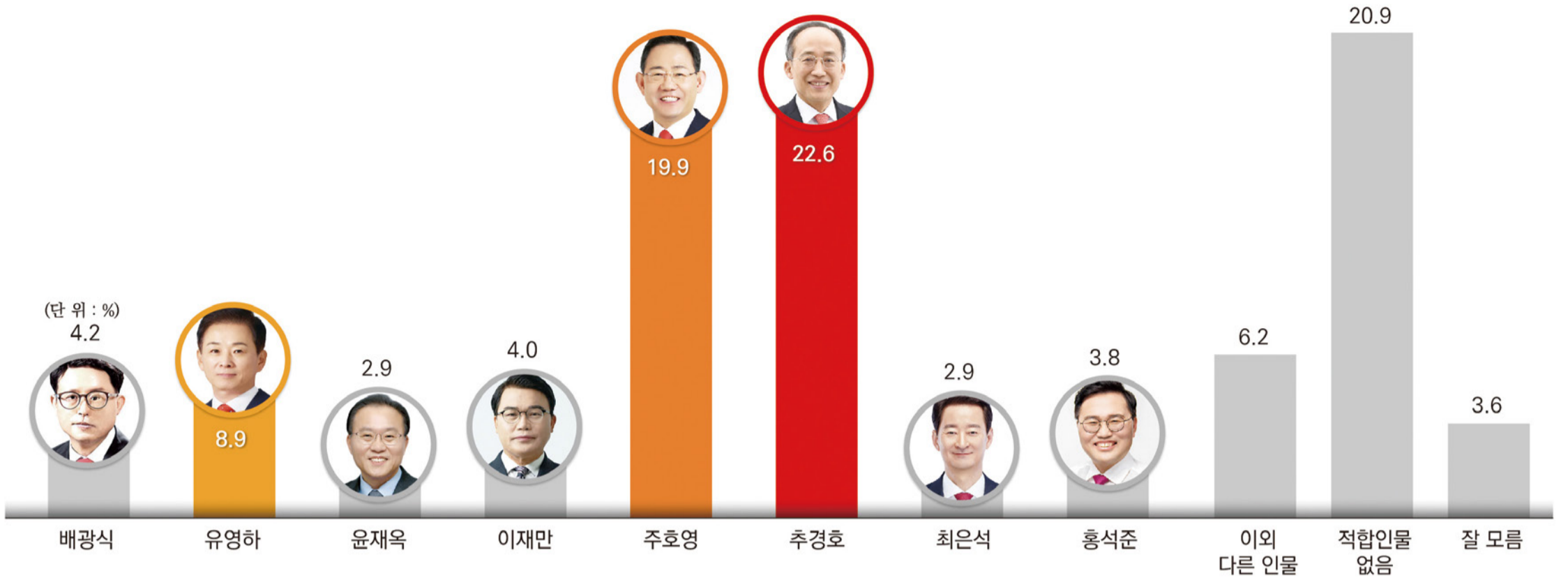


### 대구광역시 선거 여론조사 국민의힘 후보 중 차기 대구시장 적합도



## 추경호 22.6%·주호영 19.9% ‘팽팽’...적합 인물 없음 20.9% 변수

#### 국민의힘 대구시장 적합도 조사

대구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 가운데 차기 대구시장 인물 적합도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22.6%)과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19.9%)이 오차범위 내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합 인물 없음’ 응답이 20.9%로 두 후보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 당내 경쟁 구도가 아직 완전히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 인물에 대한 확고한 선택보다는 유보적 인식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 후보 선호가 비교적 뚜렷했다. 60대에서는 추 의원이 30.9%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연령별 고령층 후보 선호 뚜렷...60대 추·70대 주 ‘우위’

동구·수성구·군위군 주 26.4%, 달서구·달성군 추 34.1%

언론 여론조사 1위 이진숙 출마시 선거 관도 변화 예상

추 의원이 28.0%로 우위를 보였다. 반면 40대(30.5%)와 50대(25.2%)에서는 ‘적합 인물 없음’이 가장 높아 정치적 핵심 세대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 판단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나 반 국민의힘 정서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권역별로도 선호가 엇갈렸다. 동구·수성구·군위군에서는 추 의원이 26.4%로 가장 높았고, 달서구·달성군에서는

추 의원이 34.1%로 우위를 보여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서구·북구(23.4%)와 중구·남구(29.3%)에서는 ‘적합 인물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나 향후 출마예정자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추 의원(24.4%)과 주 의원(22.1%)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여성에서는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11.0%)의 지지율이 남성(6.7%)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적합도 평가도 달라졌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을 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자층에서는 추 의원(27.9%)과 주 의원(31.4%)이 동시에 상승해 대형 지역 현안과 두 후보 간 정책 연계성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적합 인물 없음’이 46.9%로 가장 높아 국민의힘 후보군 전반에 대한 거리감이 뚜렷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추 의원(35.6%), 주 의원(21.1%), 유 의원(12.7%) 순으로 나타났고 ‘적합 인물 없음’은 3.6%에 그쳐 당내 지지층에서는 후보 인식이 상당 부분 정리된 모습이다.

무당층에서는 ‘적합 인물 없음’이 33.0%로 가장 높아 선택을 유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추 의원(23.5%)과 주 의원(13.9%)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향후 무당층 확장 과정에서 두 후보 간 경쟁이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최근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의 강세를 보여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조만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을 경우 국민의힘 출마예정자 간 관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혜림 기자 hlh@idaegu.com

#### 조사 개요

조사 의뢰 : 대구일보  
조사 기관 : KPO 리서치  
조사 일시 : 2026년 2월6-8일  
조사 대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 유효 표본 수 802명(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 4.7%  
오차 보정 방법 :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  
표본 오차 : ±3.5%포인트(95% 신뢰 수준)  
내용 :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적합도 및 정당 지지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대구일보 홈페이지 참조

이혜림 기자 hlh@idaegu.com

##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우선”...민주당 지지층 70% ‘김부겸’

차기 대구시장 적합조사 전체 응답자 중 28.7% 김 선택 ‘우세’  
40~50대 긍정적 응답...서구·북구 ‘30%대’ 응답 비교적 높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구시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28.7%의 선택을 받으며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19.4%,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은 14.1%로 뒤를 이었다.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 6.2%), 홍의락 전 의원(4.8%), 홍석준 전 의원(3.8%)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응답자중 ‘적합한 인물 없음’은 4.8%, ‘잘 모름’은 4.6%, ‘다른 인물’은 3.5%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결과를 보면 김부겸 전 총리는 40대(43.1%)와 50대(36.9%)에서 긍정적 응답을 받았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14.4%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추경호 의원은 50대(20.0%), 60대(21.3%),

70세 이상(22.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주호영 의원은 70세 이상에서 21.2%로 고령층 비중이 두드러졌다. 다만 20~30대에서는 ‘잘 모름’과 ‘이외 다른 인물’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젊은층에서 후보군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지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결과를 보면 서구·북구(31.8%)와 중구·남구(35.8%)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에 대한 지지는 동구·수성구·군위군과 달서구·달성군에서는 다소 분산된 모습을 보였다. 추경호 의원은 달서구·달성군에서는 26.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는 서구·북구와 중구·남구에서도 각각 16.7%, 14.8%를 기록

하며 일정 수준의 지지를 확보했다. 두 사람의 지지율을 분석하면 지역별로 후보 인지도와 정치적 연관성이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 결과는 남성들이 김부겸을 선택한 비율은 31.5%로, 여성(26.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들은 유영하, 윤재옥, 홍의락 등 일부 출마예정자에 대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잘 모름’ 응답 비중은 남성보다 여성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층의 선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김부겸 전 총리가 70.0%로 압도적인 적합도를 기록하며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이 사실상 단일 후보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선호도가 다원화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추경호 의원이 31.4%로 가장 높았고, 주호영(21.4%), 유영하(10.2%), 김부겸(5.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야권 지지층 내에서는 아직 차기 대구시장 인식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지 정당 없음’ 응답자층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추경호(9.6%), 주호영(12.2%)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시장의 우선 추진정책별 인물 적합도는 사안마다 달랐다.

‘AI·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우선 정책으로 꼽은 응답자층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35.8%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추경호(17.0%), 주호영(15.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응답자층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는 28.7%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이어 추경호(20.2%), 주호영(13.2%)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을 선택한 응답자층에서는 추경호(29.4%)와

주호영 의원(25.9%)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김부겸의 적합도는 14.1%로 전체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났다.